



07-15 (통권 141호)

2007.4.13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제조업 취업자 2년 3개월 동안 감소세 지속
- IMF, 세계 경제 완만한 둔화 전망

경영 노트

- 美 블로거의 기업혁신 평가

사회 트렌드

- 신뢰도 낙제의 한국 사회
- 빛 좋은 개살구 '여풍(女風)'

저널 브리프

- 온난화와 역발상

洗心錄

- 용기와 변혁

□ 제조업 취업자 2년 3개월 동안 감소세 지속

- 3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2월에 이어 건설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부문 등이 증가한 반면, 농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은 감소
 - 특히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 증감률(전년동월대비)은 -1.4%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따라 2004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동안 감소세를 지속함
 - 제조업 취업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우선 경제 성장에 따르는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 확대, IT 기술 이용 확대에 따르는 기술·자본 집약도 증대 등에도 일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는 경기적 요인의 영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경제의 고용 흡수력 증대를 위해서는 타 업종보다 취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제조업 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필요가 있음

□ IMF, 세계 경제 완만한 둔화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10일 2007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6년의 5.4%에서 다소 둔화되어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의 올해 GDP성장률은 지난해 3.3%에서 0.9%p 하락한 2.2%를, 한국은 지난해 5.0%에서 다소 둔화되어 4.4%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미국 주택시장 둔화가 미국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원래 4.3%에서 4.4%로 약간 높게 조정됨
 - 한국은 전자 부문의 대외 수요 회복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 침체와 원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둔화가 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
- IMF는 미국의 급격한 경기 후퇴,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 대규모 국제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급격한 경기 후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

□ 美 블로거의 기업혁신 평가*

- (개요) 최근 미국에서 혁신과 관련된 이론과 사례연구, 동향분석 등을 연구하는 블로거 사이에 혁신지수(Innovation Index)가 화제가 되고 있음
 - 포춘, 비즈니스위크, 포춘 등이 혁신기업을 선정·발표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었으나 개인이 혁신지수를 개발해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는 처음임
 - 개발자는 마케팅 전문가인 샌자이 달랄(Sanjay Dalal)씨로 ‘창의성과 혁신’(Creativity And Innovation Driving Business)이라는 블로그를 통해 혁신지수 분석과 혁신동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혁신지수) 매주 IBM, HP, 구글, GE 등 혁신기업의 주가를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와 비교하고, 혁신 관련 동향 분석과 전망을 제공함
 - 주가상승률과 혁신활동(신제품 및 개선제품, 인수합병, 제휴, 협력건수) 및 특허취득건수로 기준에 선정된 2006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재평가함
 - 향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시장 크기를 키우는 혁신 유형인 파괴적 혁신(Distruptor Index)을 내용으로 하는 파괴지수도 개발할 예정임

< 블로거의 혁신기업 평가 사례 >

구 분	내 용
구글: 애매하고 혼란한 혁신	- 전 직원에게 근무 시간의 20%를 아이디어 발굴에 사용 - 원칙도 계획도 없는 소위 스파게티 방식으로 제품개발 추진
월마트: 녹색혁신	- 지역사회 환경비즈니스에서 모두 윈-윈 모델 - 우호적 기업 이미지 형성과 잠재적으로 매출증가에 도움
도요타: 혁신공장	- 도요타의 혁신은 발명의 예술, 완벽의 추구, 최적화의 리듬 - 반면에 너무 능숙하고 현명해 하찮은 문제의 집착도 강함

- (시사점) 혁신지수가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함
 -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혁신 기업의 명확한 정의나 기준,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혁신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 산출이 가능한 혁신지수는 기업의 경쟁력 관리 측면이나 투자자의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

* 이 글은 『Economic Review』 (2007.4.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신뢰도 낙제의 한국 사회

- 20-30대 젊은 층이 우리 사회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는 44점(100점 기준)에 불과하고, 특히 정치계에 대한 평가는 17.4점으로 매우 낮음
 - 예술계에 대한 평가가 5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계(51.8점), 의료계(51.3점), 시민단체(50.6점), 경제계(46.3점), 교육계(44.9점), 법조계(44.0점) 순임
 -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집단은 정치계로 17.4점을 기록했으며 종교단체(36.9점), 공무원 집단(39.5점), 언론계(43.8점)도 평균 이하를 기록함
- ‘도덕성’ 회복을 통해 신뢰를 높이는 것이 최선임
 - 신뢰도 평가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도덕성’(68.7%), ‘역할수행 능력’(49.4%), ‘사회 기여도’(42.0%), ‘업무 추진력’(15.6%), ‘조직구성원’(11.9%) 등의 순임
 - 집단별로는 정치계의 경우 ‘도덕성 회복’, 공무원 집단은 ‘책임의식 강화’, 경제계는 ‘미래 통찰력’, 언론계는 ‘공정성 확보’, 교육계는 ‘도덕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됨

□ 빛 좋은 개살구 ‘여풍(女風)’

- 10대 그룹 여직원 수가 4년 사이에 47%나 급증함
 - 10대 그룹 계열 상장법인 69개 사의 여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만 129명으로 2002년 말(5만 4,274명)에 비해 47.6%나 급증(같은 기간 남자 직원은 29만 1,790명에서 34만 4,746명으로 18.2%가 증가)
 - 특히 삼성의 여직원 수는 2002년 말 2만 1,544명에서 4만 3,300명으로 101.0%나 크게 늘어 여직원 비중이 24.1%에서 30.6%로 높아짐
- 여직원 수는 급증하였지만 남녀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됨
 - 여직원 평균 연봉은 2002년 2,883만 원에서 3,429만 원으로 18.9% 증가한 반면, 남직원은 4,502만 원에서 5,592만 원으로 24.2%로 늘었음
 - 또한 남직원 기준 연봉 수준은 2002년 64.0%에서 지난해 61.3%로 2.7%포인트 떨어졌으며, 여직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삼성의 경우 평균 연봉이 2002년 3,510만 원에서 3,464만 원으로 오히려 1.3%가 감소함
 -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여직원 업무의 질적인 향상이 양적인 증가에 미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임

□ 온난화와 역발상*

- (개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지구 온난화를 잘 이
용한다면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온난화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은 점점 도태되겠지만, 철저한 분석 하에
이를 역이용한다면 오히려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임
- (사례) 미국의 보험업계와 선물시장은 지구 온난화를 역이용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음
 - 2004~2005년 허리케인으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았던 미국 보험사들
이 기상 분석에 대한 투자 확대로 2006년에 대규모 순익을 기록함
 - 시카고 상품거래소에는 허리케인 발생 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
중심으로 ‘허리케인 선물시장’을 개설함

< 온난화로 혜택을 받을 업종 >

구분	내용
하이브리드 차	-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어날 것이 므로 일본의 도요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됨
해수 담수화	-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식수화 하는 기술 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베올리나 워터사가 주목받고 있음
재생에너지	-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 붐이 일어날 것임
제약(백신개발)	- 온난화로 열대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글락소스미스클라 인이나 노바티스와 같은 백신 제조회사가 혜택을 볼 것임
고위도 농업	- 와인 재배지나 농경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이 높아 시베리아 캐나다, 알래스카들이 주목을 받을 것임
환경 컨설턴트	- 환경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각 기업들의 환경문제 의뢰 가 늘어날 것임

- (시사점) 국내 기업들도 환경 보호 중심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
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 기업들은 FTA 등에서 합의된 환경 보호 의무 시행을 위한
비용 발생 측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높음
 - 지구 온난화 문제를 환경 시장 창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사업의 기회
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함

* 한국경제(2007.4.10)의 “온난화, 역으로 이용하면 ‘돈’”을 요약·재구성한 것임

□ 용기와 변혁

‘묻는 것은 한 번 부끄러우면 되지만, 묻지 않는 것은 평생 부끄럽게 된다’

타인에게 묻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모르는 것을 그냥 놓아두면, 평생 모르는 상태가 되어 일생을 부끄럽게 살 수도 있다는 뜻의 일본 속담이다. 모르는 것을 묻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일본 혼다의 창시자, 혼다 소이치로는 용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또는 용맹스럽기 때문에 용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자신에게 있어 어떠한 불리한 결과가 될 지라도 자신이 진실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용기다’

한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생존할 수 있다. 용기는 기업의 변혁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에서는 지금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이 기업이 변혁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을 변혁하는 데에서는 다양한 저항이 있어 여기에 굴하거나 타협하게 되면 변혁은 실현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영품질 이니셔티브>라는 온라인 매거진에서는 기업의 변혁 형태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조직 목표와 비전의 변혁이다. 둘째, 조직 자체의 변혁, 말하자면 조직 형태, 운용 체제 등에 있어 변화를 추구한다. 셋째, 리더 자신의 변혁이다. 리더 대부분은 과거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혁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넷째, 사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사원 전부의 변화를 위해 유능한 중간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변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이다. 과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데
이것이야말로 大勇이다”**

- 맹자(孟子, 공손추 편)